

#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7강, 고린도전서 서론, 2부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7강, 고린도전서 서론, 2부입니다.

글쎄요, 7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노트의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도시와 고린도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을 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은 고린도인과 바울이 활동했던 세상의 종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들을 때, 고린도인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 유산의 하이라이트를 마무리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개인주의에 의해 크게 제한되었으며, 그 힘은 지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적 학대, 특히 지위에 기반한 조작된 법원 등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서론을 Garland와 매우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보에 대한 출판된 출처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읽기 쉬운 해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출판된 출처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권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출처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제 22장의 하단에서 종교적 맥락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맥락을 얻었습니다. 여기 종교적 맥락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로마 도시와 마찬가지로 코린트는 핵심적으로 다신교적이었습니다.

모든 전형적인 신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황제 숭배로 알려지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왕좌와 제단의 동맹이었고, 카이사르는 원하는 대로 신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와 이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 다양성은 더 자세히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들은 신처럼 행동했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제국 숭배에 대한 글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정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Garland가 말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종교적 맥락은 종교적 관행의 카페테리아 줄과 같았습니다

카페테리아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특히 미국과 남부에서는 카페테리아가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쟁반을 받고 원하는 음식을 골라야 했습니다. 음식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야 했고, 사람들이 다 와서 이것저것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 있는 K&W 카페테리아에 데려갔던 적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니는 카페테리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부 캐롤라이나의 시골에서 자랐고 외출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녀는 K&W에 갔고, 우리는 줄을 서 있었고, 나는 식당에 익숙했기 때문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서서 그녀의 쟁반을 보았습니다. 쟁반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의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줄 끝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지를 제외하면요. 글쎄요,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의 종교는 식당 줄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고대 신들과 고대 예배 방식의 풍부한 공급이었습니다. 당신이 달라고 한쪽에 두는 신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나아졌습니다.

아테네의 맥락 밖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우 다르지만, 코린트와 아테네는 경쟁 도시였습니다.

다원주의 문화 때문에 로마는 종교 활동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요. 흥미롭지 않나요? 로마는 종교 활동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신교 문화였거든요.

그들은 그 종교 활동이 로마 통치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 글썄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로마 통치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오래 전부터 로마 통치의 가시였습니다.

복음서와 팔레스타인 역사를 연구해 보면, 빌라도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로마의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헤롯의 조상 중 한 명인 헤롯 대왕의 조상을 쫓아내고 빌라도를 데려와서 그 도시를 관리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로마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경찰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18-32를 읽어 종교의 다원적 본질에 대한 1세기적 맥락을 느껴보세요. 브루스 윈터는 *Seek the Welfare of the City*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로마 도시를 분석하고 로마가 세상을 다루는 관점은 도시를 삶의 중심으로 만들고 모든 시민이 도시의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꽤 괜찮은 내용이었고 로마 제국에서 꽤 잘 통했습니다.

도시의 복지의 일부는 종교에 대해 파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모든 신은 같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신을 경배하세요. 다른 사람의 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지내세요.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온 세상이고, 유대 민족이 이미 살았던 세상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종교는 배타적 입니다 .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수 없다 . 그것은 매우 배타적 이다 . 포괄적이지 않고 배타적이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사회적, 종교적 규범에 어긋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나라에서 현재 문화의 많은 규범에 어긋납니다. 기독교의 배타주의는 그 문화에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다신교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을 무신론자로 여겼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 당신은 무신론자여야 한다.

이제,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입장, 그들의 시간과 공간, 그들의 문화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자라고 불리고 싶습니까? 다신교 문화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도시의 강조점 때문이었습니다. 도시는 도시의 이익을 위해 다신교 축제로 틀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상인이고 도시의 이익을 위한 축제가 있을 것이라면, 당신은 그 축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독교 상인이고 그 축제가 다신교를 찬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요? 기독교인들은 불경하고 종교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다신교적 관점에서 도시의 이익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류를 미워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래에 우리의 문화 중 일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 적어도 저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시민적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배타주의는 용납 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세기와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바울의 선포, 세 번째 요점, 바울의 예수만이 주님이라는 선포는 제국 송배에 직접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니 서재에서 책을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상황이거나 책을 주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로마 제국 송배에 대한 일반적인 책을 찾아서 이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도시. 그 도시는 매우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이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느낄 수 있으려면 그것과 접촉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대 고린도의 이미지들.

이제 23~28페이지에서 고대 고린도에 대한 세부 정보가 꽤 길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도 이러한 참조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으면 성경 e러닝 웹사이트의 맥락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 슬라이드들을 조작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저는 이 슬라이드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라이선스 등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저는 그것들을 그 사이트로 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가서 이 아이템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28페이지에서 슬라이드와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중 일부를 스스로 표면화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훑어보거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것들은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노트의 28페이지로 오면 주목하세요. 1차 출처의 문학적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코린트 사진을 볼 수 있는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또한 시작 부분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실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 공개하면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8페이지에서는 일차 자료의 문학적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고대 여행 가이드였던 스트라보의 인용문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적 비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1세기 초반까지 그는 많은 고대 도시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전과 바울 사이의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원전 1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재건된 도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보는 당신에게 통찰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읽고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인용문을 줄 겁니다.

28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오늘은 잘 진행되고 있죠? 페이지 면에서요.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길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들을 가질 수 있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들을 파헤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만, 그 시대의 주요 출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에 대한 것들을 듣고, 읽고, 볼 수 있습니다. 38페이지에서, 우리는 슬라이드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역사적 출처의 측면에서 이 이미지 섹션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그러니, 그 점들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감사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노트 38페이지에서 이미지 섹션 끝이라고 적힌 곳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역사와 관련하여 C 지점, 고린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 주요 성경 학습 내용인 매우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의 설립입니다. 글쎄요, 강의의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멈추어 읽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서기 49년에서 51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2~3년의 시간적 범위 안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설립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출처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노트에 적어두겠습니다. 미리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창립된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도시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연대기적 흐름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재구성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Ralph Martin의 신약 기초에 대한 두 권 세트에서 그 재구성을 가져왔습니다.

39페이지에 그 재구성에 대한 매우 편리한 종류의 항목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 일부를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머리가 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멈추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은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항에서 교회의 설립이 나옵니다. 2항에서 바울은 18장에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고, 사람들에게 경청하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바울이 그들에게 쓴 약 4번의 성경 본문에 약간의 잔여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일부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특히 고린도후서와 관련하여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잔여 부분이 고린도후서 본문에 남아 있고 그 본문에 통합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어쨌든, 3번째 요점에서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 고린도전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5:9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5:9을 들어보시면, 제가 여기 올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적 부도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편지에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했고, 우리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을 쓰고 있는 동안, 그는 이미 써서 그들에게 보낸 다른 문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책에 통합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9에서 언급된 실제 고린도전서, 즉 잃어버린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6:14-7:1에 그 잃어버린 편지의 일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건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요점. 폴은 그들에게 편지를 쓴 후에 클로이의 가족 구성원에게서 배웁니다.

이제 클로에가 고린도전서 1:11에 언급됩니다. 초기 교회가 후원자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건물도 없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1, 10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여러분은 모두 서로 말에 동의하고, 여러분 사이에 분열이 없고,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합일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편의상 보통 2011 NIV에서 11절을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전 버전에서는 형제라고 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자매들도 항상 포함되었습니다. 제 형제 자매들, 일부는 Chloé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Chloé는 여성형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는 여성 후원자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초기 세기에 가정과 다양한 장소에서 모였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모임의 기회를 지원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있었을 수 있는 몇몇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에의 가족 구성원들은 바울에게 교회가 파벌로 나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여기 멀리서 정보를 얻고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 거의 같은 시기에 바울은 고린도인들로부터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잘 표현했네요. 그들은 바울에게 도전 편지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 그 편지는 7:1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7:1은 이제 당신이 쓴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인용문을 만듭니다. NIV와 같은 버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용문으로 넣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말한 내용이에요. 폴이 인용한 거고, 그리고 나서 답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를 제기할게요.

이것을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이 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폴에게 썼습니다.

그것은 도전 편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그것은 설명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도 그들이 폴의 생각 중 일부에 도전하고 있었다는 의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의 상호작용을 요청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당파성에 대응하고 조언 요청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로 알고 있는 편지를 써서 답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여러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구성하기 매우 쉽습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 둘씩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실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경 고린도전서는 그가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경에서 고린도전서라고 쓴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따르면 디도가 가져갔고, 그는 그 후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행을 거느렸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그 일행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원한다면, 그의 학습자들이죠. 그것이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의 학습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며 편지를 가져오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폴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한 1, 2, 3장을 읽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디모데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고린도로 파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과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메일, 트위터, 그 밖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앞뒤로, 그리고 사자들을 통해 보내져야 했습니다. 일곱째, 디모데는 이 특별한 사명으로 고린도로 보내졌습니다. 여덟째, 그동안 유대인 사절의 도착으로 조장된 심각한 위기가 고린도에서 터졌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따르면 바울의 권위는 도전을 받습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는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있던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왔습니다.

오, 문제가 생겼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유대인 사절들은 유대주의자라고 불릴 겁니다. 이제, 저는 결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유대교의 더 강력한 존재감을 위해 경쟁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결국 바리새인들의 발전하는 가르침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사도로서 행한 유대-기독교적 가르침을 퍼뜨리는 데 더 많은 유대인의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은 바울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을 뒤로 잡아당겨 유대인적 사고방식에 바울을 더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곳에서는 유대인적 가르침의 진실을 철저히 그리고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은 그리스도론적 방향으로 발전하여 구약을 성취하고 구약이 무엇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유동적인 시대이고 1세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잠시라도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상상의 산물입니다. 신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역사에 큰 변화를 주고 싶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는 대표자를 보내는데, 우리는 이 대표자가, 우리의 예시를 위해, 우리에게 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 천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얼마나 기꺼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저는 우리 대부분이 그걸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조니-컴-후에 온 사람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이 그리스도 사건의 메신저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역사의 레이더에 잡힌 작은 일격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일격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소파에 있는 고양이처럼 목덜미에 털을 세우고, 개가 소파 위로 뛰어오르는 것일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오해에 대해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문화와 시간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현실 세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를 생각했습니다, 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종교 전체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매우 다른 상황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디모데가 그것을 다룰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바울은 고린도를 잠시 방문하여 직접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상황에 대한 변화를 알리고 일을 바로잡기 위해 거기에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앞에서 굴욕을 당했고, 그는 큰 괴로움 속에 에베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2장과 7장에 언급된 강력한 항의 편지를 고린도인들에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물의 편지 또는 엄중한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글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분실되었거나 고린도후서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가 이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답장을 쓰고, 아마도 그는 자신의 편지를 그들에게 답장하는 편지의 자료로 사용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좋아요, 우리는 이제 이걸 바로잡았어요. 우리 모두 기쁘지 않나요?"라고 말합니다. 11절, 혹은 11번. 고린도전서 16장에 설명된 계획에 따라, 하지만 9항에서 언급된 고린도에 대한 중간 방문으로 인해 약간의 지연이 생긴 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는 트로아스에 온다. 그는 디도를 찾을 수 없으므로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가로채고 사방을 돌아다닌다. 12번째, 그는 디도를 만나고, 디도는 그에게 바울, 고린도의 반란은 끝났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우리에게는 고린도후서가 실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책이지만, 그것은 위대한 책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자서전적인 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후서의 일부를 꺼내어 목회 사역에 대한 과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목회적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온라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줍니다. 고린도전서와 별도로 고린도후서를 읽고, 고린도와 바울 사이에서 주고받은 이 수많은 문제들과 방문과 편지들, 그리고 주고받은 일들을 읽다 보면, 고린도후서의 힘을 잃게 됩니다. 성경을 원래의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우리의 실제 고린도후서를 전부 쓰거나 그가 이미 쓴 특정한 것들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 편지는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거쳐 다른 두 형제와 함께 고린도로 다시 보냅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20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20장에 있습니다. 18-1과 20-2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을까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년. 바울과 고린도 사이에 주고받는 구절 사이에는 년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2에서 고린도에 도착하여 그들과 좋은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다른 어떤 지리적 위치보다 더 큰 곳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낸 시간의 양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고린도 도시와 얼마나 의미 있는 교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는 그에 대한 방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신들에 대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 서신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역사입니다. 이제, 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40페이지의 노트에 삽입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원래 제가 직접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가져온 웹사이트를 알려드렸어요.

시간적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공통 분모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체로는 많은 해석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바울의 여행과 그의 여행에 대해 배우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의 선교 여행과 그 후 팔레스타인에서 로마로 돌아온 그의 여행. 저는 여러분에게 편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40, 41,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는 페이지 수가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좋아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에 대한 연대기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대하고 흥미로운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코린트 교회의 안색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Garland는 특히 로마 관점에서 이 교회의 안색과 본질에

대한 훌륭한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꺼낸 식료품 목록을 여기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샘플일 뿐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구절은 계급 투쟁이 많았다고 말해줍니다. 거짓으로 기반한 지적 교만함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향력 있는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티 정신, 도덕적 느슨함, 그리고 신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공식적인 부도덕이 다루어졌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적 문제를 겪고 있던 여러 하위 집단을 살펴봅니다. 이는 예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나왔다면, 로마 세계에서 말했듯이, 여성이 정기적으로 두 명의 남자만 알면 예외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것은 성적 측면에서 매우 개방적인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경계가 있었고, 공식적인 결혼 등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아내 외에도 온갖 성적 일들이 일어나는 부수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기독교적 성생활의 가르침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마치 성적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4장, 연합의 부족과 사랑의 부족.

그 부분은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연합과 사랑의 부족입니다. 12-2, 유대인의 존재.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 성적 문제와 상당히 관련된 자유 개념에 대한 오해.

하지만 자유롭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덕 기준에 복종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정경 고린도서의 날짜, 장소, 구성은 어떨까요?

글쎄요, 우리가 언급했듯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썼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서기 54-55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그것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시했고, 여러분은 주석서의 서론에서 그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몇 달 후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이후, 아마도 어딘가, 아마도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일 것입니다 . 55-56년, 몇 달 후, 고린도후서가 옵니다. 아마도 1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진정성과 구성의 문제는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고린도전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서론을 읽고 고린도후서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를 해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서신의 몇 가지 필수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매우 다른 서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문제의 통일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파티 정신이 있는 모든 종류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고, 저는 아폴로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엉망진창입니다. 빵과 잔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문제 측면에서 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문화의 일부였던 개인주의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교회의 공동체 문제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여기 44페이지에 제가 드린 이 구절입니다. 44페이지, 고린도전서 아래. 통일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획일성 : 저는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일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 통일은 다양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연합은 획일성이 아닙니다.

통일은 다양성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역 리더라면, 그것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사역 리더십은 당신의 모든 작은 오리들을 당신 뒤에 줄지어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도하면 사역에서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합은 사람들을 틀에 강제로 맞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과 아폴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당신이 목회하는 사람들의 큰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그들을 기계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다양성과 함께.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억누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다양성을 복음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다양한 종류의 사역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저 사람보다 더 좋아하거나, 이 사람과 저 사람보다 더 동일시하는 것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부정은 우리 인간 관계에 너무 깊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클릭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 끌린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때때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수준의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나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십의 세속적 원칙 중 일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대신 가까이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때때로 매우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사역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렇게 개방적이고 솔직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거죠. 가족 같은 거죠. 우리는 종종 교회의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면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사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것입니다. 재밌는 사람도 있고, 가족에게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인 것처럼 그들이 누구인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환경입니다.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환경. 고린도 교회는 다양했습니다 . 그리고 그 다양성은 인간 본성이 그것에 반발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양성에서 진실하고 강력한 것을 찾는 것보다. 이제, 그것은 특정 도덕적 우산 아래의 다양성입니다. 거친 다양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진실을 무시하는 다양성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자신의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특히 성격의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포용하고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게 하지 마세요. 탁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용어. 알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영, 영적, 지식, 지혜, 교회, 세상, 권세 또는 권위, 거룩하다, 성결하다. 고린도전서에는 개인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인칭대명사 you가 146번 등장. 바울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이분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린트 내의 특정 하위 집단에 있는 당신은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좋은 당신 과 나쁜 당신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것은 엄청납니다.

매우 개인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와 비교해보면요. 우리는 방금 핵심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4장 하단의 핵심 용어를 살펴보세요. 약함, 환난, 위로, 자랑, 사역, 영광. 감정적인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용어는 감정적이지 않고 더 합리적입니다. 매우 다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책임입니다. 소홀히 다루어졌지만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책임입니다. 고린도서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소개에서 많은 필수적인 특징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 그것들을 표면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만의 목록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주의하세요. 여정을 즐기세요. 글썄요, 다행히도, 저는 이 강의를 조금 더 간략하게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서 나의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44페이지에서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실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책 자체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매우 많이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꼭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세기에 바울과 그의 청중에게 살아있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이슈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뉘앙스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당신이 폴과 그의 청중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듣고 느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도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7강, 고린도전서 서론, 2부입니다.